

# 보이는 차이나

## 유니트리 IPO 임박,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에 주목

- 유니트리 IPO를 앞두고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대 중. 유니트리는 중국 본토 증시를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산업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역할 전망
- 중국은 공급망 경쟁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에서 구축한 제조 역량과 희토류·핵심 부품 공급망은 휴머노이드 양산 확대의 핵심 강점으로 평가됨
- 유니트리를 시작으로 애지봇, Deep Robotics 등 주요 기업들의 IPO도 이어질 예정. 중국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 수혜에 투자할 수 있는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 로봇 ETF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유니트리 IPO 앞두고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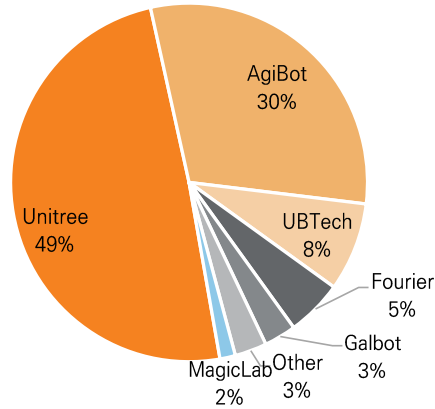
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이 다시 시장의 중심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세대 AI 산업의 핵심 응용 분야로 제시하며 관련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유니트리(Unitree)의 과창판 IPO가 임박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니트리는 2016년 항저우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딥시크(DeepSeek) 등과 함께 '항저우 6 소룡(杭州六小龙)'으로 불리는 대표 혁신기업 중 하나다. 설립 이후 약 10년 만에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춘절 갈라쇼(춘완)에서 선보인 군무 퍼포먼스를 비롯해 쿵푸, 격투기, 파쿠르, 백플립 등 다양한 동작을 구현하는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며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생태계의 주요 협력사로 참여하며 기술력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유니트리 IPO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홍콩 증시에는 유비테크(UBTech), 도봇(Dobot) 등 로봇 관련 기업들이 상장돼 있지만, 유니트리는 중국 본토 과창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과창판은 홍콩 증시 대비 상장 심사 기준이 엄격하고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검증 절차도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TrendForce에 따르면 2026년 중국 휴머노이드 생산량 기준 유니트리의 점유율은 49.3%로 전망된다. 애지봇(30.4%)과 합산하면 약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현재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은 양사의 주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지위를 감안하면 유니트리는 과창판 상장을 계기로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을 대표하는 상장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산업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026년 중국 휴머노이드 생산량 기준 시장점유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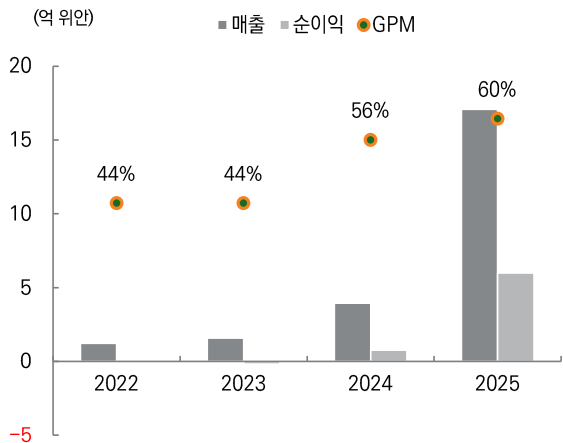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설명서로 살펴본 유니트리의 경쟁력과 도전 과제

유니트리의 과장판 IPO 투자설명서를 살펴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한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유니트리는 양산 능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며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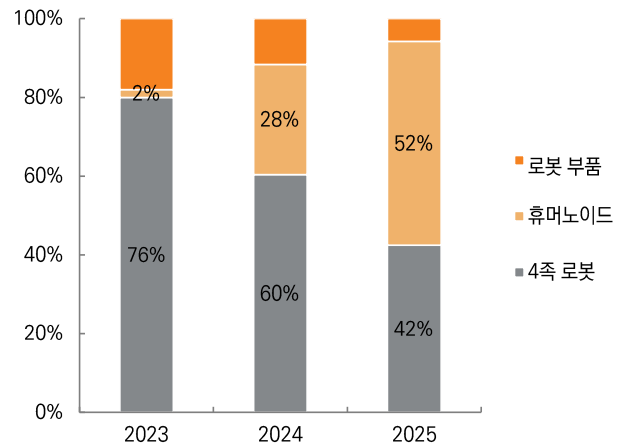
실제로 2025년 매출은 17.08억 위안 (+335% YoY), 순이익은 2.88억 위안(+204% YoY)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기존 4족 로봇 중심 사업 구조에서 휴머노이드 중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림 2. 유니트리 연간 실적 추이



자료: 유니트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매출 비중 변화



자료: 유니트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니트리의 경쟁력은 핵심 부품 내재화와 양산 역량에 있다. 모터, 감속기, 관절 등 주요 부품을 자체 개발·생산하며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G1 모델 가격을 9.9만 위안(약 1,900만 원) 수준까지 낮추며 휴머노이드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4족 로봇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운동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제품 양산 역량도 확보했다.

반면 투자설명서에서 유니트리와 직면한 한계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니트리의 경쟁력은 핵심 부품 내재화와 양산 능력, 가격 경쟁력 등 하드웨어 중심 역량에 좀 더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2025년 연구개발비는 1.45억 위안으로 매출 대비 약 8.5% 수준에 머물렀으며, 유비테크(UBTech)와 애지봇(AgiBot) 등 주요 경쟁사들이 AI와 Embodied AI 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제조 경쟁력과 수익화 능력은 이미 입증했지만, 향후 휴머노이드 산업의 경쟁 축이 하드웨어에서 AI 모델, 데이터, 로봇 플랫폼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적인 기술 투자와 역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VLA(시각-언어-행동), 월드모델(World Model) 등 휴머노이드의 '대뇌' 영역에서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장기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실적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변화도 확인된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4.23억 위안(+68.5% YoY)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인력 확충, 판매비 증가 영향으로 조정 순이익은 4,025만 위안(-52.6% YoY)으로 감소했다. 특히 AI 모델 개발 투자와 함께 춘절 갈라쇼(춘완·春晚) 참여 등 대규모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1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라기보다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투자 성격에 가깝다.

실제로 이번 IPO 자금 사용 계획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확인된다. 일반적인 제조기업이 IPO를 통해 생산능력 확대나 공장 증설에 자금을 집중하는 것과 달리, 유니트리는 모집 자금의 약 85%를 AI 모델 개발, 휴머노이드 본체 업그레이드,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제조 플랫폼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다. 유니트리 역시 향후 경쟁력이 하드웨어보다 AI 모델과 로봇 플랫폼 역량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생태계의 주요 협력사로 참여하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니트리는 엔비디아의 Isaac GR00T 및 Jetson Thor 기반 휴머노이드 개발 생태계에 참여하며 글로벌 AI 플랫폼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했다. 유니트리의 하드웨어·양산 역량과 엔비디아의 AI 모델·개발 플랫폼이 결합될 경우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는 향후 유니트리가 VLA, 월드모델 등 휴머노이드 AI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왜 휴머노이드 산업에 집중할까?

중국이 휴머노이드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이유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AI 기술의 산업화, 공급망 고도화 등 국가 전략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지만 노동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휴머노이드를 향후 제조업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 핵심 생산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공장, 물류, 전력, 광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로봇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AI 산업 측면에서도 휴머노이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언어모델과 AI 인프라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AI가 실제 세계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Embodied AI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휴머노이드는 AI가 현실 공간에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대표적인 구현체로 평가되며, 최근 중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Embodied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VLA(시각-언어-행동)와 월드모델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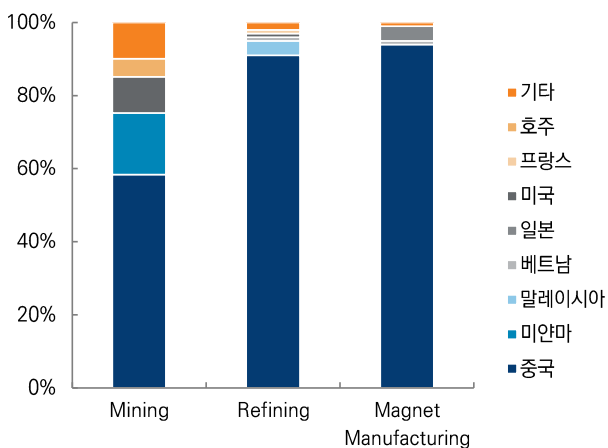
중국이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공급망 경쟁력에 있다. 휴머노이드는 AI 칩, 센서,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배터리, 정밀가공 부품 등 수많은 산업이 결합된 종합 산업이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하이테크 제조업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특히 액추에이터와 모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기반 영구자석 공급망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배터리, 전력 반도체, 정밀 제조 분야에서도 강력한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상당수 부품이 전기차 산업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원가 절감과 생산 확대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전기차 산업을 통해 구축한 공급망과 제조 역량이 휴머노이드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가격 경쟁력과 양산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휴머노이드 부품 원가 비교 (단위: 천 달러)

구분	중국 공급망 (2025)	중국 공급망 (2034E, 연 100만대 생산 가정)	非 중국 공급망 (2025)
액추에이터	22	7	58
로봇 핸드	15	6	47
발/하지부	4	1	16
비전 시스템	0.4	0.2	0.5
AI 칩·소프트웨어	3	1	7
배터리	0.1	0.1	0.3
기타	1	1	3
총 부품 원가 (BOM)	46	16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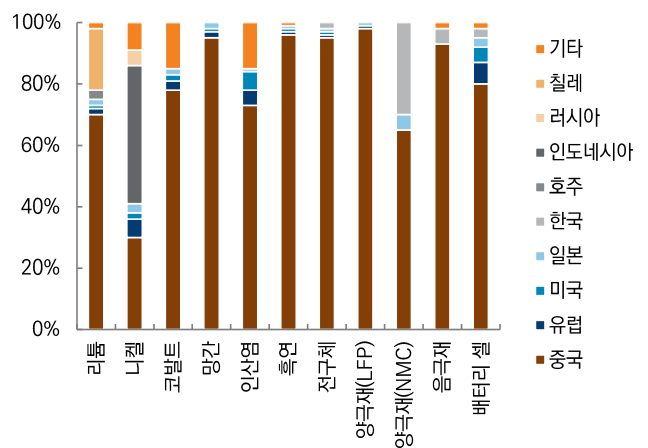
자료: Morgan Stanley, The Robot Almanac Vol.3,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내 중국 비중



자료: IE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주요 전략광물 공급망 내 중국 비중



자료: IE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정책 지원 역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3년 11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발전 지도의견」을 발표하며 휴머노이드를 컴퓨터, 스마트폰, 신에너지차에 이은 차세대 혁신 하드웨어로 규정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핵심 기술 돌파와 초기 양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2027년에는 산업 규모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2030년에는 휴머노이드의 보급화와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을 추진하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은 해당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인 양산과 상용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니트리와 애지봇 등 일부 선도 기업들은 이미 수천 대 규모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양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전력·물류·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과 적용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23년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양산 체계 구축' 목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다음 단계인 Embodied AI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Embodied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국가 미래산업 육성 정책에 포함시키며 기술 개발, 실증 프로젝트, 산업단지 조성, 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VLA(시각-언어-행동), 월드모델(World Model),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휴머노이드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DRAM 제조사인 CXMT를 비롯해 유니트리 등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의 상장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 조달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에도 휴머노이드 분야의 핵심 부품 기업과 완제품 기업들의 IPO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방향성은 국산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완제품 경쟁력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고성능 센서, AI 반도체,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에서는 여전히 해외 기술 의존도가 존재한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추진했던 것과 유사하게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도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AI 모델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완제품 생산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투자시사점: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에 주목

중국 증시에서는 CXMT에 이어 유니트리 IPO 역시 주목해야 할 핵심 이벤트다. 유니트리는 향후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대표 상장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계기로 액추에이터, 센서, 구조부품, 완제품 등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니트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현재 애지봇(AgiBot), Deep Robotics, 푸리에(Fourier Intelligence) 등 주요 휴머노이드 기업들 역시 상장을 준비중이며, 산업 성장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배터리 산업이 CATL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후 소재·장비·부품 기업으로 투자 기회가 확산됐던 것처럼, 휴

머노이드 산업 역시 대표 기업들의 상장을 계기로 밸류체인 전반이 새로운 투자 테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개별 기업보다 휴머노이드 산업 전반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과장판 상장 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액추에이터, 센서, 구조부품, 완제품 등 핵심 밸류체인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유효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0053LO)는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 성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핵심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니트리 IPO 이후 확대될 수 있는 산업 성장 모멘텀에 투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 주요 편입 종목

구분	기업명	종목코드	세부 사업 영역
완제품·플랫폼	UBTech Robotics	9880 HK	산업용 휴머노이드 및 서비스 로봇 개발
	XPeng	9868 HK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AI 알고리즘
	Shenzhen Dobot	2432 HK	협동로봇·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AI·소프트웨어	Iflytek	002230	AI 대모델 및 음성·인지 기술
센서	웨이얼반도체 (하오웨이)	603501	비전센서(CIS) 공급
	Sunny Optical	2382 HK	카메라·광학 모듈 공급
	Hesai Group	2525 HK	LIDAR 센서 공급
액추에이터	Inovance	300124	서보모터 및 액추에이터
	Hengli	601100	볼스크류 및 전동 액추에이터
	Wolong Electric	600580	로봇용 모터 및 구동 시스템
감속기	Leader Harmonious	688017	감속기 및 관절 모듈
	Shuanghuan	002472	감속기 및 정밀 기어
관절 모듈·열관리	Tuopu	601689	관절 모듈 및 구조부품
	Sanhua	002050	열관리 및 구동 부품
기구 부품·프레임	Luxshare Precision	002475	정밀 제조 및 구조부품
	Shenzhen Everwin	300115	경량화 금속 구조부품
	Lingyi iTe	002600	정밀 구조부품 및 전자부품
	Minth Group	0425 HK	경량화 구조부품
	Ningbo Joyson	600699	제어시스템 및 스마트 하드웨어
	Ningbo Zhenyu	300953	볼스크류 부품 및 구조부품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